

시가 실생활 바꾸는 '온디바이스' 시대 본격화

인터넷 없는 환경에서 전자기기만으로 사용 가능 'AI 서비스' LG전자 등 기업들 신제품 공개...과기부 "기술개발 로드맵 계획"

'생성형 AI'가 지난해 전세계를 휩쓴 데 이어, 2024년에도 '인공지능'이 메가트렌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AI가 실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 2024'가 개막했다. CES는 미래 IT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CES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온디바이스 AI'였다. 주관사인 CTA(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올해 슬로건으로 'All Together, All On'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인류의 문제를 기술혁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온디바이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온디바이스 시대?

온디바이스는 말 그대로 기기 자체에 포함된 AI를 뜻한다.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스마트폰, PC, 가전제품 등 전자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다.

여태까지 인공지능 기술은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분석하고 다시 기기에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 칩을 내장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연산한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챗GPT와 달리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번역과 얼굴인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

집·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AI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개인정보 보호와 시간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업들 앞다퉀 '온디바이스' 뛰어들어-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2024년형 네오 QLED 8K TV' 등 AI를 탑재한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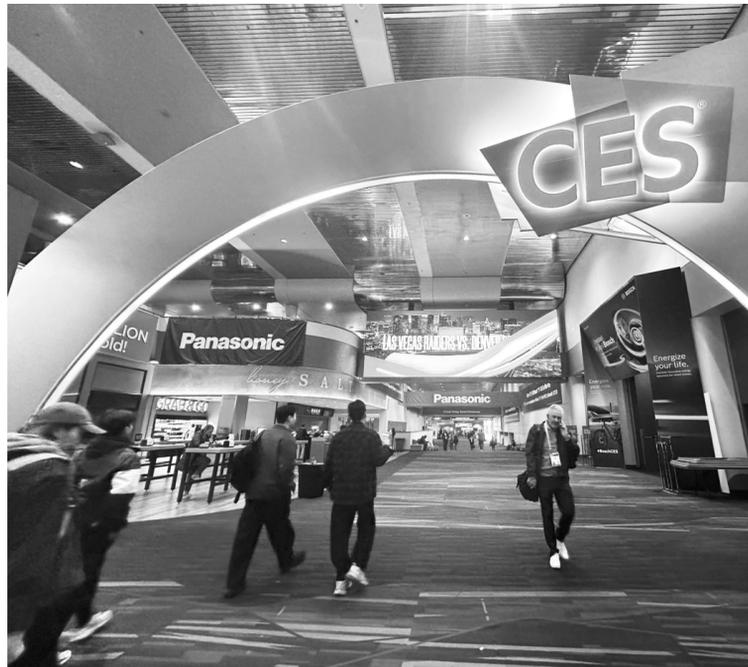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8일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고 "AI용 최적화 메모리 솔루션을 대거 공개하고 업계 리더로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생성형 AI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 역시 CES에서 가정용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등 AI 기능을 탑재한 가전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애플도 올해 9월 아이폰16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온디바이스 AI 카운터'·과기부, SW 신규 R&D 과제 공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온디바이스 AI 카운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공고'에 따르면, 과기부는 다음달 14일까지 하드웨어 인지형(HW-aware) 시스템 SW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4개 과제(60억원)를 선정한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개막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샌트럴홀.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를 우선 공고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주요 산업별로 적합한 요소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하드웨어 인지형 시스템 SW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쏟아 IT 정보

'네이버 스캐어 광주' 입주사 모집

네이버는 광주시 동구에 있는 오프라인 교육 공간 '네이버 스캐어 광주'에 무료로 입주를 희망하는 2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입주사 7곳을 선정한다. 2018년 9월에 개관한 네이버스캐어 광주는 음식 특화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가 마련된 오프라인 교육 공간이라고 네이버는 소개했다.

네이버는 현재 광주를 비롯해 서울 3곳(종로·홍대·역삼)과 부산에서 네이버스캐어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월 광주점에서는 처음으로 사업자 단위의 무료 입주 파트너사를 모집했다.

네이버스캐어는 2022년 10월 중로점을 시작으로 중소상공인(SME)과 창작자에게 사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파트너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연합뉴스

'갤럭시 S24' 18일 언팩 행사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스마트폰을 선보인다고 정식으로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연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제품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기기 안에서 정보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연산할 수 있는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가 예상된다.

이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및 파트너사에 전달된 영상 초대장은 '모바일 AI의 새 시대를 연다'를 주제로 꾸며졌다. 티타늄 박스가 열리면서 세 개의 별이 등장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별이 하나 늘어난다. 은하수가 나타난 뒤 "갤럭시 AI가 온다"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SKT-네이버-아프리카TV

AI 활용 스포츠 콘텐츠 협력

SK텔레콤은 네이버, 아프리카TV와 인공지능(AI)·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부문에서 협력한다고 4일 밝혔다.

3사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스포츠팀과 선수의 비디오 클립을 자동 추출한 인공지능 하이라이트를 공동으로 제공한다. 중계방송에서 광고 빈도, 노출 시간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시청자 맞춤형 광고로 자동으로 바뀌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SK텔레콤과 네이버, 아프리카TV는 2024년 KBO리그 시즌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해 골프와 농구, 배구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들은 AI 및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청자에게 더 풍부하고 개인화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카카오톡, 카톡설명서 큐레이션 데이터 분석 50대, 다양한 친구 추가·관리 기능에 관심

카카오톡이 새해를 맞아 지난해 카톡설명서 결산을 발표했다.

카카오톡은 지난 6일 '카톡설명서'에 카카오톡 주요 신규 기능을 소개하는 큐레이션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카톡은 지난해 카톡 활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 90개를 발행했으며 2200만명의 사용자로부터 65만여 개의 피드백을 받았다.

해당 결산에서는 카톡의 주요 신규 기능을 소개하는 큐레이션과 연령대별로 인기있는 큐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30대는 지난해 새로 출시된 카카오톡 기능 중 실수를 줄여주는 기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60대는 조용한 채팅방 기능에 관심을 가졌고, 50대는 다양한 친구 추가법을 많이 조회했다.

◇앗, 실수로 카톡 잘못보냈을 때는?

10~30대의 경우 카톡설명서에서 '실수 없이 마음 편한 카톡 활용법' 큐레이션을 상대적으로 많이 읽었다.

이 큐레이션은 많은 채팅방을 오가면서 카톡을

잘못 전송하는 것을 방지하는 '현재 채팅방 입력창 잠금' 기능과 아래로 밀려난 채팅방을 찾는 데 유용한 '자주 쓰는 채팅방 상단 고정하기' 기능을 소개한다.

10~30대가 이같은 기능을 많이 클릭한 이유는 소셜미디어(SNS) 에티켓을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이 채팅방을

혼동해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것을 방지하는데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조용하게 카톡하기" Vs. "친구 초대는 다양하게"

40대와 60대의 카톡 키워드는 '조용한'이었다. 이들은 '조용한 채팅방'과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묶어서 소개하는 '알림 스트레스가 줄

어듭니다'를 가장 많이 클릭했다. 현재 실험 중인 기능인 '조용한 채팅방'에 중요도가 낮은 채팅방을 보관해 두면 해당 채팅방만 알림이 꺼지고, 채팅 화면에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50대는 앞선 40~60대의 결과와 달리 새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전화번호 없이도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친구 추가는 다양하게 관리'는 간편하게 큐레이션을 가장 많이 봤다. 이들 중 42%는 ID와 QR코드 등 연락처가 없어도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 추가하기' 콘텐츠를 클릭했다.

한편 사용자 호감도를 분석한 결과 작년 카톡설명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기능은 '특이이렌으로 피싱 예방하기' (호감도 90.8%)였다. 이어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89.1%), '특정인더로 할 일 관리하기' (87%), '카톡 실험실 참여하기' (86.9%), '카톡 입력창 잠금 설정하기' (86.8%) 등이 순위에 올랐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담당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